

인문학의 거장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 텐데...” 수화기를 타고 들리는 음성은 선생이 지은 저작들만큼이나 깊고 나직했다. 《김우창 전집》《심미적 이성의 탐구》《정치와 삶의 세계》《행동과 사유》《시대의 흐름에 서서》《풍경과 마음》 등 인문학의 심연과 폭넓은 사유를 보여준 김우창(金禹昌, 71)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시대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힌다.

올해 7월에 출간된 《자유와 인간적인 삶》에서 선생은 ‘자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과 사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왜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전해주고 있다.

“자유가 왜 중요한가를 따져봐야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추구하다보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행동해야 하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세상에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중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핵심적인 것이면서도 위협스러운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유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때 자유는 인간의 자기 존엄성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은 기초이지만 반면 위협을 포함합니다.”

선생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특강을 하는 것 외에도 ‘인문학 강좌’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학 강좌’는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데, 국내 인문학자는 물론 외국의 인문학 석학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생은 1965년에 <청맥>지의 <엘리어트의 예>로 등단했다. 선생도 한때 시인에 대한 꿈을 간직했었다. 그러나 지금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사회비평가 등으로 불린다. 우리가 글쓰기의 모델로 연암 박지원을 삼듯 훗날 선생의 글쓰기를 모델로 삼을 날이 올 듯하다. 여러 이름 중 “나는 평론가가 좋다”며 환하게 웃으신다. “언제 데뷔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언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중요하지. 우리는 너무 형식을 좋아해. 나이는 정확히 언제 태어났느냐 보

다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 어느 시대에 성장했느냐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과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전혀 다르잖아요.”

선생이 “언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매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글을 통해서 선생의 사유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에서 우리사회가 놓여있는 위치를 가늠해주고 평가해준다.

“‘지식인은 불편한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은 불만이 많아서 일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지(웃음). 글은 자기 삶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 대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잘 모르는데, 글로 표현하면 연결이 되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 언어는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느낌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언어가 만들지만 그 척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선생은 릴케의 《오르페우스에게 부치는 소네트》를 덧붙여 설명했다. 《오르페우스에게 부치는 소네트》는 릴케가 1922년 2월 뮌헨 성에서 쓴 2부의 연작시로 각각 26편과 29편의 시가 담겨 있다. 선생의 글쓰기 철학은 릴케의 시와 관련이 있었다. “《오르페우스에게 부치는 소네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울부짖고 소리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릴케는 울부짖는 시가 아니라 오르페우스의 음악처럼 그런 시를 쓰고 싶다고 고백했지.”

선생은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인문학 위기를 안타까워했다. “예를 들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은 상황에 따라 그 길로 가다보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문학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반성 없이 촉발되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위험하고 불행해 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지. 인문학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고를 길러줍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선생은 10월부터 있을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 회의를 준비했다. 글쟁이를 만나다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쉬움이 남는다.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선생의 삶을 짧게나마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